



개기월식... 광주하늘 '우주소'
21일 태양·지구·달이 일직선으로 들어서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 모습을 보이지 않은 개기월식이 3년 만에 일어났다. 월식은 오후 2시27분부터 시작돼 8시6분께 끝났다. 그 중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즉 개기월식은 달이 뜨는 시각인 오후 5시12분부터 오후 5시53분까지 진행됐다. 이후 부분월식이 진행되는 오후 7시11분까지 달의 일부분만 밝아진 모습이 관찰됐다. 이어 오후 8시6분께 부분월식까지 종료돼 달이 평소 밝기를 되찾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오후 6시25분, 6시35분, 6시55분, 7시15분에 본 달의 모습이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7분 / 해질 17시 24분 / 달출 18시 25분 / 달몰 08시 13분

호흡기 환자 주의
안개나 박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광주	맑음	0/12℃
목포	맑음	3/11℃
여수	맑음	6/13℃
나주	맑음	-3/13℃
완도	맑음	3/12℃
구례	맑음	-2/13℃
해남	맑음	-1/12℃
장흥	맑음	-1/13℃
순천	맑음	2/13℃
영광	맑음	-1/11℃
진도	맑음	2/12℃
전주	맑음	-1/11℃
군산	맑음	0/9℃
남원	맑음	-3/10℃
옥산도	맑음	6/10℃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파고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파고 0.5~1.0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파고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파고 0.5~1.0m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0/6	-6/-1	-6/-1	-5/3	-2/7	-1/8

2010, 그 사건 그 후...

⑤ 경찰간부, 아내 토막살해

“영세상인 보호”

광주 동구 조례 추진

잔혹한 살인 뒤 자살... 前妻도 행불 ‘미스터리’

지난 9월 광주에서 발생한 ‘경찰간부 아내 토막살인 사건’은 지역 사회는 물론, 경찰 조직 안팎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현직 경찰 간부가 잔혹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를 살해·유기했다는 점과 이 간부가 유치장에서 자살을 시도해 숨지는 바람에 수사가 중단된 점은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켰다.

당시 혐의 등의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 경위는 아내를 살해한 직후 “아내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며 거짓 가출신고를 하고,

삼키는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켰다. 당시 경찰은 김 경위의 전처 역시 지난 1994년 6월에 가출신고된 뒤 행방불명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당시 유치장 근무자들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경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는 점에서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샀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9월 19일 서부서도 모지구대 소속 김모(57) 경위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 경위는 같은 달 16일 새벽 1시40분께 광주시 서구 급호동 자신의 집에서 18년 전 재혼한 아내 백모(43)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 경위는 경찰에 불참한 뒤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이 살해 당시 혐의 등의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 경위는 아내를 살해한 직후 “아내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며 거짓 가출신고를 하고,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들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치장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 경위는 이미 ‘자살을 하겠다’고 치밀하게 마음먹은 상태여서 미처 유치장 직원들이 자살 시도를 막지 못했다”며 “사고 이후 유치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김호기 기자 kimho@kwangju.co.kr

경찰 도덕성·피의자 관리 불신 증폭
유치장 사고 재발 방지 대책 과제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억을 하다’는 내용의 유서까지 미리 작성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김 경위는 범행을 인정한 뒤에도 “시신을 토막 낸 뒤 골목길에 놓인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무언가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김 경위는 체포된 다음날인 9월 20일 유치장 화장실에서 휴지를

끼기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김 경위가 유치장에서 자살을 시도해 뇌사상태에 빠진 지 8일 만에 숨지면서 경찰의 허술한 유치인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경위가 이미 체포 당일에 도한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유서까지 남겨 둔 상황에서 재차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이 이를 막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당시 유치장 근무자들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경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는 점에서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샀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들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치장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light(자외선)를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소독과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개모르게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

KBC 광주방송 문화탐방

겨울방학 신나는 해외여행

무안에서 떠나요~

대국 북부의 꽃이향아리
즐거움이 가득한 고지리 트레킹
원시 자연에서 팻말 트레킹
머문강에서 신나는 래프팅 보트
고산악 마을에서 만나는
리듬족

산타페 관광 799,000원~

무안 ↔ 광 전세기

2011년 1월 6 10 14 18 22 26 6회 취항

1. 광 관광 3박 4일 : 949,000원~
2. 광 골프 3박 4일 : 1,449,000원~ (36홀부터)

특전: 현지 미팅 & 샌딩 / 특식 3회 : 스테이크, 자메이칸 그릴 BBQ, 참치회
포함내역: 왕복항공료, TAX, 미팅 & 샌딩, 1억원 여행자 보험, 시내관광, 전일정 식사
불포함: 유류할증료, 가이드 팁(성인20\$, 소인 10\$)

무안 ↔ 치앙마이 전세기

2011년 1월 5/ 9/ 13/ 17/ 21/ 25일 6회 취항

1. 치앙마이 관광 4박 6일 : 1,149,000원~
2. 치앙마이 골프 4박 6일 : 1,299,000원~ (72홀부터)

특전: 골든 트라이 앵글 3개국 관광(태국/미얀마/라오스) 전용 이동수단 체임(단나와 마차, 롱테일보트, 록키, 꼬끼리 트레킹, 우마차, 대나무밧줄)
포함내역: 왕복항공료, TAX, 미팅 & 샌딩, 1억원 여행자 보험, 시내관광, 전일정 식사, 기사가이드팁
불포함: 유류할증료, 미얀마비자 40\$